

“낭만 버리니 귀농 성공 자신감 생겨”

■ 곡성 죽곡면 봉정리 귀농인 조현조·김남선 부부

곡성군 죽곡면 봉정리 조현조(43)·김남선씨(여·42) 부부는 귀농인이다. 지금이야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불과 2~3년 전만하더라도 농촌생활은 이들 부부에겐 생전 그 자체였다.

이 때문인지 이들이 전하는 전원생활의 성공 요인은 ‘낭만을 버리고 철저한 준비를 한 후 농촌에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은퇴후 전원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전원생활의 장점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다는 것이다.

전원생활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적합하지만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인해 웬만한 사람들은 업무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가.

따라서 젊은 나이에 전원생활을 하려면 전원생활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만큼 농촌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명확히 정한후 이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조씨 부부의 전원생활은 올해로 11년째를 맞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직전인 1997년 부산에서 이곳으로 거처를 옮겼기 때문이다.

조씨의 말대로 이들 부부의 전원생활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효심’에서 비롯된 귀농형식으로 시작됐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집에서 자란 조씨가 혼자 살던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낙향한 것이 전원생활의 시작이었다.

부산에서의 사업실패도 귀농 결심을 재촉했다. 조씨는 고향에서 농고를 다니다 1학년때 부산으로 건너

가 경남공고를 졸업했다.

이후 직장을 다니고 부산 토박이인 부인을 만나 가정을 꾸리면서 고향에 계신 할머니를 찾아뵙는데 정성을 다했다. 1년이면 14번이나 고향을 찾던 조씨 부부는 기계가공 관련 사업에서 실패하자 아예 곡성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조씨는 “사업에는 실패했지만 홀로 계신 할머니를 안 찾아 뵙수는 없었습니다. 교통비 등 찾아 뵙기위해

현재는 집 근처 3천500평, 인근 목사동면 4천500평 등 8천평의 배농사를 짓고 있다.

나주배에 비해 명성은 떨어지지만 당도가 높아 생산량의 60%를 미국과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다. 나머지 40%도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등 아직까지는 판로 걱정이 없다.

조씨가 배농사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연간 5~6천만원선. 태풍 등 자연재해와 병충해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연간 8~9천만원의 소득도 가능하다.

조씨는 그러나 지금이야 배농사로 경제적인 걱정이 없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길이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긴 투쟁기를 거쳐 수확기에 접어들었다’고 표현한 조씨는 “농사도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만큼 보답을 받게 된다”면서 “귀농으로 성공적인 전원생활을 하려면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전원생활의 과실을 생각하기 전에 그만큼 준비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귀농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던 부인 김씨는 “시골생활이 힘들때는 다시 부산으로 가자고 말한 적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도시에서 살라고 해도 내가 싫다”면서 “시골에 살다보니 나는 물론 부산에 살때 병원에 살다시피 하던 큰 아이의 기관지가 모두 나아졌다”고 만족해 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부산 사업 접고 ‘고향서 뭘 할 것인가’ 철저 준비 과수원 임대로 배농사 시작 ... 8천여평 부농 일궈 당도 높은 배생산 60% 美·加로 수출 고소득 올려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차라리 고향에서 할머니를 부양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고 싶었습니다”

귀농당시 그가 손에 쥔 돈은 전세금 정도였다. 젊음을 믿고 인생을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농촌생활에 매진했다. 집은 할머니가 살던 농가를 개조했고 자신의 돈으로 사들인 조그마한 과수원과 임대로 빌린 과수원에서 배농사를 시작했다.

도시에서의 생활이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농촌생활은 밤낮이 따로 없었다. 조씨는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해 점차 과수원 규모를 늘려나갔다.

면 그만한 보답을 받게 된다”면서 “귀농으로 성공적인 전원생활을 하려면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전원생활의 과실을 생각하기 전에 그만큼 준비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귀농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던 부인 김씨는 “시골생활이 힘들때는 다시 부산으로 가자고 말한 적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도시에서 살라고 해도 내가 싫다”면서 “시골에 살다보니 나는 물론 부산에 살때 병원에 살다시피 하던 큰 아이의 기관지가 모두 나아졌다”고 만족해 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조현조(왼쪽)·김남선씨 부부가 곡성군 목사동면 자신의 과수원에서 탁구공만한 크기로 자란 배에 봉지를 씌우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고시합격생 등 20여명 배출한 ‘박사골’

■ 죽곡면 봉정리는

곡성군 죽곡면 봉정리는 보성강변에 있는 죽곡면사무소를 끼고 통명산 방면으로 4km가량 들어간 산골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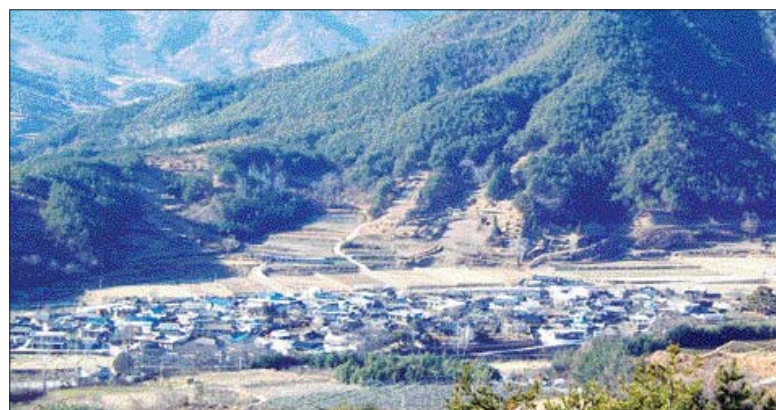
통명산과 오봉산, 천덕산 등 그리 높지 않은 산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마을 가운데로 계곡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동네다.

봉황이 머문 마을이라해서 봉정리로 불리며 풍수지리학 ‘비봉포란형’ (날던 봉황이 보금자리에 들어 일을

품은 형국)의 명당으로 꼽힌다. 주민들은 현재 110가구 270여명이 살고 있으며 고시합격생과 박사학위 취득자가 20여명 나왔다고 해서 주민들은 ‘박사골’이라 부르기도 한다.

2005년 9월부터는 산업자원부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함께 다양한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는 등 활력넘치는 농촌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농가들의 수입이 높다 보니 30~40대 젊은층이 타 지역에 비해 많고 자녀를 3~4명씩 둔 가



도 흔하다. 초·중·고교생만 하더라도 40여명에 달해 떠나는 농촌과는 거리가 멀다.

마을 청년회가 주축이 돼 ‘꿈꾸는 가을햇살’이라는 쌀 공동브랜드를 만들었으며 마을에 ‘여울가 향기

는 펜션형 숙박시설까지 갖추고 농촌 체험활동을 위해 이곳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문화재로는 함안 조씨 문중의 재각으로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 167호인 ‘영류재(永類齋)’가 있다. /정필수기자 bungy@

농촌진흥청

시우호의 전세권

중흥 골드레이크 외원권 분양·상담

골드레이크CC	골드스파&리조트	골드레이크빌리지
1억 골드레이크 개방·힐링·VIP	1억 골드레이크 19·28·38·57평형	1억 골드레이크 19·28·38·57평형
2억 골드레이크 개방·힐링	2억 골드레이크 (은도+힐링) 19·28·38·57평형	2억 골드레이크 19·28·38·57평형

문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5 동원빌딩 11층 (02) 550-3107

농촌진흥청

귀농·귀촌 농산물

“귀농·귀촌 농산물”

1. 귀농·귀촌 농산물
2. 귀농·귀촌 농산물
3. 귀농·귀촌 농산물

문의: 043-515-3339~40